

# 일본어 「의뢰」 표현에 대한 화용론적 고찰\*

김 종 아\*\*

(e-mail: sakura@dongnam.ac.kr)

---

## 목 차

---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3.2 「～て」
1.2 연구방법과 범위	3.3 「～てもらえる」
2. 발화행위로서의 「의뢰」에 관한 선행 연구 이론	3.4 「～くれないか」
2.1 Austin과 Searle의 발화행위이론	3.5 「～てもらえないか」
2.2 Grice의 「협동의 원리」와 Leech 의 「정중의 원리」	3.6 「せ(させ)+～てくれ/ ～てもらえる/～くれないか/ ～てもらえないか」
3. 일본어의 「의뢰」 표현	3.7 수행동사에 의한 표현
3.1 「～てくれ」	3.8 희망·욕구를 나타내는 표현
	4. 결론

---

## 1.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의뢰」 표현은 화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리라 판단되는 행동을 청자에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표현이다. 일본어에 있어서 「의뢰」 표현은 전용(專用)의 형식이 없어서 몇몇의 언어형식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의뢰」의 의미를 나타낸

---

\* 본 논문은 동남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남보건대학교 관광일어과 조교수

다. 이러한 「의뢰」는 화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청자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청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뢰」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법이므로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이 소속된 사회와 문화적 차이에 따라 언어사용법에 있어서는 상이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이점은 이문화(異文化)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 학습자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의뢰」 표현의 여러 형식을 익히고 발화 상황에 맞는 표현법을 쓴다면 일본인과 원활한 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기존의 문법적 범주에서의 언어형식과 의미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의뢰」 표현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어에서 「의뢰」를 나타내는 언어형식에는 어떤 표현법이 있으며 각각의 표현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의뢰」의 의미내용을 나타내며,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과 범위

「의뢰」 표현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법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음성기관을 통해 발화함과 동시에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부탁하는 표현이므로 발화행위에 속한다. 발화행위에는 의뢰를 비롯해 권유, 권고, 거절, 비난, 사죄 등등이 속한다. 그중에서도 「의뢰」는 동작주가 청자이며 화자를 위해 어떤 행위를 실현 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사용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경우와 에둘러 말하는 간접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사회, 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Austin과 Searle의 발화행위이론과 관련지어 일본어에서 「의뢰」를 나타내는 형식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으며, 이 표현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의뢰」의 의미내용을 나타내는지, 각각의 표현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Grice(1975)의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CP)」와 Leech(1983)의 「정중의 원리 (Politeness Principle, PP)」를 적용하여 분석,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예문은 일본 현대소설의 회화문에서 용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 2. 발화행위로서의 「의뢰」에 관한 선행연구 이론

### 2.1 Austin과 Searle의 발화행위이론

Austin(1962)은 발화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1)</sup>

- I. 발화행위(locutionary act):무언가를 말하는 행위
- II. 발화 내 행위(illocutionary act):무언가를 말하면서 행하고 있는 별도의 행위
- III. 발화매개행위(perlocutionary act): ‘발화 내 행위’의 청자에 대한 효과
- IV. 발화 내 힘(illocutionary force): ‘발화 내 행위’의 사용에 있어 가지는 효력, ‘발화 내 행위’의 최종목표

「의뢰」 표현은 혼자만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반드시 청자를 필요로 하며 청자에게 발화함과 동시에 청자가 실현해 줄 것을 기대하는 화자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화자는 청자가 실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자신이 부탁한 행위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발화 내 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화자가 의뢰한 행위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파악했더라도 수행하고 싶지 않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의뢰」 표현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자의 실행여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실행여부는 청자에게 달려있으나, 본고에서 연구하려는 「의뢰」 표현법은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자에게 자신이 실현했으면 하는 행위를 의뢰함에 있어 각각의 언어형식이 어떤 조건하에서 의뢰를 나타내는지 Searle(1969)의 발화행위 이론 중에서 ‘발화 내 행위’에 속하는 「의뢰」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 I. 명제조건: H의 미래의 행위A
- II. 예비조건: 1. H는 A를 할 수 있다. S는 H가 A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정상적인 경우에 자진하여 H가 A를 할 것인가가 S나 H에게 다 같이 분명하지 않다.

1) Austin, J.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 Oxford University Press. p.109

2) Searle, J.R.(1969) “Speech acts” :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66

Ⅲ. 성실조건: H가 A를 할 것을 S는 원한다.

Ⅳ. 본질조건: H가 A를 하도록 하는 시도로 본다.

위의 조건을 살펴보면, ‘명제조건’은 발화내용에 관한 조건을, ‘예비조건’은 발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청자의 능력 및 발화에 임하는 태도에 관한 조건을, ‘성실조건’은 화자의 발화에 대한 기대 및 목적을, ‘본질 조건’은 청자가 발화를 실행할 것으로 보는 발화행위의 기본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의뢰」 표현의 명제조건은 미래의 행위이다. ‘예비조건’에는 화자가 자신이 의뢰한 행위를 청자가 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으나 그것이 실현 될지 어떨지가 청자에게 달려 있음이 포함되어 있다. ‘성실조건’에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알 수 있다. 즉, 의뢰한 행위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화자의 의도이다. ‘본질조건’은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알고 그에 응하려는 행위를 취하려 할 때 비로소 충족되는 조건으로, 이 본질 조건이 충족되어야 「의뢰」의 ‘발화 내 행위’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청자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결과와 관련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토대로 「의뢰」 표현의 적절한 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명제내용이 미래의 내용일 것
- ② 피의뢰자는 의뢰받은 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③ 행위의 결정자는 피의뢰자에게 있다.
- ④ 의뢰자는 피의뢰자에 의한 행위를 원한다.
- ⑤ 의뢰자는 피의뢰자에 의한 행위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 ⑥ 행위의 실현이 의뢰자에게 있어 이익이 되지만, 피의뢰자에는 부담이 된다.

## 2.2 Grice의 「협동의 원리」와 Leech의 「정중의 원리」

「의뢰」가 화자와 청자의 어떤 상호관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Grice(1975)의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CP)」와 Leech(1983)의 「정중의 원리(Politeness Principle, PP)」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Grice(1975)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방향과 수용된 목적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만큼 대화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CP)」를 제시했다.<sup>3)</sup>

3) Grice, H.P.(1991) “Studies in the way of words” : Harvard University Press. p.26-27

I. 양의 격률:

- (a) 대화 교환의 현재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 (b) 요구된 것 이상의 정보로써 대화에 기여하지 말라.

II. 질의 격률: 대화 기여를 진실 되게 하라.

- (a) 당신이 믿기에 그릇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마라.
- (b)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마라.

III. 관계의 격률: 전후 관계성을 맺도록 하라.

IV. 방법의 격률: 명확하게 하라.

- (a) 표현의 모호성을 피하라.
- (b) 애매함을 피하라.
- (c) 간결하게 하라.
- (d) 순서적으로 하라.

화자는 「의뢰」의 목적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관계가 있는 사항을 이야기 할 것이며,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 할 것이다. 또한 청자는 부담이 되더라도 화자와의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와 화자에게 도움을 줬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자에게 도움을 주려 할 것이다.

이렇듯 일상회화에서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CP)」가 지켜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종 위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사회적이면서 심리적인 면에 근거를 둔 화자의 내면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협동의 원리」를 보완 하면서 화자에게 함축된 심리적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Leech(1983)의 「정중의 원리」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sup>4)</sup>

I. 배려의 원칙

- (a) 타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것 (b) 타인에 대한 이익은 최대한으로 할 것

II. 관대성의 원칙

- (a) 자기에 대한 이익은 최소한으로 할 것 (b) 자기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으로 할 것

III. 시인의 원칙

- (a) 타인의 비난을 최소한으로 할 것 (b) 타인의 칭찬은 최대한으로 할 것

IV. 겸손의 원칙

- (a) 자신의 칭찬은 최소한으로 할 것 (b) 자신의 비난은 최대한으로 할 것

V. 합의의 원칙

- (a) 자신과 타인의 의견의 상이를 최소한으로 할 것 (b) 자신과 타인의 합의를 최대한

4) Leech, G.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 Longman Linguistics Library p.132

으로 할 것

#### VI. 공감의 원칙

(a) 자신과 타인의 반감을 최소한으로 할 것 (b) 자신과 타인과의 공감을 최대한으로 할 것

이중에서도 I의 ‘배려의 원칙’은 「의뢰」 표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부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자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행위로 화자는 청자를 배려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 언어형식에 반영될 것이다.

특히 I의(a)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배려로 소극적 배려라 할 수 있으며, I의(b)는 청자의 이익과 관련된 적극적 배려로 볼 수 있겠다. 이 두 원리는 문법과 달리 위배되어도 발화가 성립된다. 문법적 측면에서는 문장이 문법에 위배된다면 올바른 문장이 성립되지 않지만, 발화에서 「협동의 원리」가 위배된 경우에는 화자의 심리적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함축된 의미를 유추해 낼 수가 있다. 또한 청자의 반응이 「협동의 원리」를 위배할 경우, 화자 혹은 청자 자신을 위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더라도 문법적으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닌, 어느 표현이 더 공손한가 아닌가하는 정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대상인 「의뢰」 표현의 경우에는 다양한 언어형식이 이 있을 것이고 이중에는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보이기 위한 표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간의 상이점에 대해 현대 일본어의 용례를 바탕으로 「협동의 원리」와 「정중의 원리」를 적용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 일본어의 「의뢰」 표현

### 3.1 「～てくれ」<sup>5)</sup>

(1) 「まい、うちにある鍋やボウルを全部持ってきて下さい。」 [西87]

(2) 「これはおまえが持っていてくれ」 [世46]

(3) 「普通の白い紙は捨てないでね。カラー印刷のしてある紙やプラスチック、ビニール製品はこの袋に入れてちょうだい」 [西78]

5) 「～ください」와 같은 정중체는 보통체로 대표한다. 이하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4) 「参考人は着席してください」と委員長はいった。〔新〕
- (5) 「××町住民のみなさん、どうか食鉄病摘発に協力してください…」ラジオカーのスピーカーが説得調にしかし威圧的な調子でしゃべりながら封鎖地域の中を移動していった。〔新〕
- (6) 「まあ、飲んでくださいや…」〔新〕
- (7) 「ゆっくり羽根をのばしてくださいね」〔新〕

(1),(2),(3)은 「~てください」「~てくれ」「~てちょうだい」 등의 행위의 수수(授受)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해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의뢰하는 표현이다. 행위의 동작주는 청자가 되며, 청자에게 부담이 되나 화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의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てくれ」는 친구사이에서 「~てちょうだい」는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표현법이다. 수수표현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의뢰하는 표현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협동의 원리」가 준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의 동작주는 참고인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위원장이 참고인에게 앉을 것을 「명령」하고 있으나, 명령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뢰하는 형태의 표현법을 쓰고 있다. 즉, 의미내용은 「명령」을 나타내나, 「의뢰」의 표현법을 사용해 「명령」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5)의 동작주는 불특정다수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에 가까운 의미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나, 의뢰의 표현법을 사용해 (4)와 마찬가지로 「명령」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전철안의 안내방송, 또는 공공건물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가볍게 명령하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명령형 보다는 의뢰의 표현으로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6),(7)은 청자에게 있어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 행위를 하도록 권하는 표현이다. 동작주, 수익자 모두 청자가 된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의뢰」를 나타내는 「~てください」「~てくれ」「~てちょうだい」는 발화 장면과 그 사용조건에 따라 각각 「의뢰」「명령」「권유」의 의미내용을 나타내며, 이 중에서 「의뢰」를 나타낼 경우의 조건은 동작주가 청자가 되고 수익자는 화자가 되며, 어떤 행위의 실현을 기대하며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다.

### 3.2 「~て」

- (8) 「だから考えて、おばあちゃん。どんな努力をしたらいいの?」〔西66〕

(9) 「サンドイッチをつくろう。裏の畑にいてレタスとキンレンカを採ってきて」 [西22]

(10) 「でも今は、とにかくカツ丼よ。はい、食べて」 [キ151]

(8)은 「~て」 뒤에 「ください」「くれ」「ちょうだい」 등의 수수표현이 생략된 표현법으로, 동작주는 청자이며 화자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의뢰 하므로 「협동의 원리」가 준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는 할머니가 자신의 손녀딸에서 밭에서 야채를 가져오도록 가볍게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며, (10)은 청자에게 있어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 행위를 하도록 권하는 장면이다. 3.1과 같이 발화 장면과 그 사용조건에 따라 각각 「의뢰」「명령」「권유」의 의미내용을 나타내며 이중에서 「의뢰」를 나타낼 경우의 조건은 동작주는 청자가 되며 수익자는 화자가 되며 어떤 행위의 실현을 기대하며,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다.

### 3.3 「~てもらえる」

(11) 「一時までに行ってもらえますか」 [キ142]

(12) 「そうですね。まず君たちがどうして学校に行かなくなった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話してもらえますか」 [希307]

(13) 「バアちゃんも、もどってもらえますか」 [新]

(11),(12),(13)의 동작주는 청자이며, 화자는 청자를 향해 어떤 행위를 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단지 청자의 능력 혹은 상황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면 화자가 원하는 행위를 해 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언어형식은 상대의 능력을 묻는 의문형을 취해 상대가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부탁하는 장면으로, 청자는 「협동의 원리」의 [Ⅲ.관계의 격률]에 의거해 화자의 발화를 해석해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부탁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청자에 대한 부탁을 청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표현해 상대가 느끼는 부담감을 최소화 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3.4 「~くれないか」

(14) 「10万円ほど貸して下さいますか」 [新]



(15) 「すみません、シャッター押してくれませんか」 [新]

(16) 「サングラスを外してくれないかな?」 [希10]

(14),(15),(16)의 언어형태는 수수표현의 부정 의문문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 줄 것을 의뢰하는 표현이다. 3.1과 달리 직접 해 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명제에 대한 질문이며 그 자체는 긍정적 명제의 부정, 즉 (14)는 ‘10万円貸してもらう’ (15)는 ‘シャッターを押してもらう’ (16)은 ‘サングラスをはずしてもらう’를 함의한다.

표현법상 부정의문문이 사용되었고 이는 「~てください」 「~てくれ」 보다는 완곡하다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정문이 긍정문에 비해 처리에 시간이 걸리며 처리 방법도 난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의 의향을 묻는 의문형이 사용되어 어떻게 보면 「협동의 원리」의 [IV.방법의 격률: 명확하게 하라]에 위배되는 듯 보이나 이는 발화를 필요 이상으로 완곡화, 난해하게 하기 위함이며, 곧 무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중의 원리」의 소극적인 배려(=a)타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것)의 원칙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 3.5 「~てもらえないか」

(17) 「わかっています。もちろん、忘れてはいませんよ。しかし、ちょっと急用ができましたので、あしたに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あしたの晩には、必ずおうかがいいたしますから」 [新]

(18) 「校長先生も網島先輩も、過去のわだかまりはすっぱりと、水に流して、今回はオヤジの顔を立っていただけませんか」 [新]

(19) 「修理を呼ぼうにも、近くに電話ボックスがなくて、さっきから途方に暮れてるんですよ。できれば、どこか電話のある場所まで乗せていってもらえませんか」 [新]

(17),(18),(19)은 3.4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겠느냐]와 다르게 화자 자신이 상대의 호의를 받아도 되는지 어떤지를 상대에게 묻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협동의 원리」의 [IV.방법의 격률: 명확하게 하라]에 위배되는 듯 보이나 화자가 의뢰한 행위를 청자가 실현해 주면, 청자의 행위 덕분에 화자는 혜택을 얻게 되고, 청자는 화자를 위해 뭔가 해주었다는 점에서 이익(=심리적인 것으로 기쁨,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중의 원리」의 청자에 대한 소극적인 배려(=a)타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것)와 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b)타인에 대한 이익은 최대한으로 할 것)가 보완된 3.4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 3.6 「せ(させ)+~てくれ/~てもらえる/~くれないか/~てもらえないか」

(20) 「私に任せてください」 [新]

(21) 「え? うん、そうだね。ばばは今夜ここに泊めてもらって明日帰るから、それまでにまいの気持ちを聞かせてもらえるかな?」 [新]

(22) 「ちょっと、お話しさせていただいてもいいでしょうか」 [希30]

(20),(21),(22)는 동사의 「て」 형이 아닌 「せ(させ)て」 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동작주는 위의 표현들과는 다르게 화자 자신이 된다. 하지만 이 ‘말화내 행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이 허락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일종의 「의뢰」 표현으로 간주하여 본고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즉, 청자는 화자의 부탁에 답을 하면 되고, 화자는 청자의 허락과 동시에 자신이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청자의 허락 덕분에 화자는 이익을 얻게 되고, 청자는 화자를 위해 뭔가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익(=심리적인 것으로 기쁨,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동의 원리」의 [IV.방법의 격률: 명확하게 하라]에 위배되는 듯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앞으로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해 허락을 구하고 행하는 표현이므로 난해하고 복잡한 듯 보이면서도 「정중의 원리」의 청자에 대한 소극적인 배려(=a)타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것)보다 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b)타인에 대한 이익은 최대한으로 할 것)가 보완된 정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 3.7 수행동사에 의한 표현

(23) 「健太郎さん、境内とこの神楽堂の外へは足を踏み出さぬようにお願いしますよ」 [新]

(24) 「何か薬とか、注射とか……手当して下さい、お願いします」 [新]

(25) 「内科の岸田睦月をお願いします」 「少々お待ち下さい」 [き42]

(23),(24),(25)는 「お願いします」의 동사를 사용하여 말을 함과 동시에 동사 자체에 화자를 위해 청자가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동사를 수행동사라 하며 부탁한다고 아예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협동의 원리」가 준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8 희망 · 욕구를 나타내는 표현

- (26) 「あの写真も焼いちゃってほしいな」 [新]
- (27) 「保根先生のお宅でしょう? 助けてほしいんです」 [新]
- (28) 「そいつは僕だって知りたいですよ」 [新]
- (29) 「彼女の意見も聞きたいですね」 [新]

(26)은 사진을 찢어버렸으면 하는 화자 자신의 욕구를, (28)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7),(29)와 같이 상대를 향해 발화되고 화자와 청자가 ‘발화 내 행위’가 실현되는 것에 서로 공헌하고 있다고 가정 한다면 (27)에서는 상대가 도와줄 것을, (29)에서는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각각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협동의 원리」의 [IV.방법의 격률: 명확하게 하라]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중의 원리」의 [I.배려의 원칙]중 소극적 배려(=(a)타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것)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이는 Searle(1969)이 제시한 「의뢰」 조건 중 ‘성실조건’(=H가 A를 할 것을 S는 원한다)부분이 표현화되면서 「의뢰」의 간접발화행위로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의 「의뢰」 표현을 문법적 접근이 아닌 화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실제로 일본어에는 「의뢰」의 전용형식이 없으며, 발화시 사용조건에 따라 「의뢰」의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형식이 있었다. 또한 각각의 언어형식이 가지는 언외적(言外的) 의미는 상이점이 보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てくれ」, 「～て」는 발화 상황에 따라 「의뢰」 「명령」 「권유」의 의미 내용을 나타내며, 「의뢰」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자신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직접 부탁하는 표현이다.

「～てもらえる」는 상대의 능력을 묻는 의문형을 취해 상대가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표현으로 상대에게 거절할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정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くれないか」와 「～てもらえないか」는 긍정문에 비해 처리에 시간이 걸리며 처리 방법도 난해한 부정문에 상대의 의향을 묻는 의문형이 사용되어

「협동의 원리」의 [IV.태도 격률: 명확하게 하라]에 위배되는 듯 보이나 이는 발화를 필요 이상으로 완곡화 하고 있으며 「정중의 원리」의 소극적인 배려(=(a)타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것)에 의해 보완되어 정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せ(させ)+~てくれ/~てもらえる/~くれないか/~てもらえないか」는 「협동의 원리」의 [IV.방법의 격률: 명확하게 하라]에 위배되는 듯 보이지만 「정중의 원리」의 청자에 대한 소극적인 배려(=(a)타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것)와 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b)타인에 대한 이익은 최대한으로 할 것)가 보완된 정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희망·욕구를 나타내는 표현은 「협동의 원리」의 [IV.방법의 격률: 명확하게 하라]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중의 원리」의 [I.배려의 원칙]중 소극적 배려(=(a)타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것)에 의해 보완되어 정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어 학습자에게 있어 원어민이 아닌 이상 언외적(言外的) 차이를 파악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문법에 맞게 사용했는데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주게 되는 경우,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Grice의 「협동의 원리」와 Leech의 「정중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이점은 일본어 교육을 문법적인 방식에만 의존하는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의뢰, 권유, 명령, 제안, 허락 등의 표현은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표현법인 만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법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龜井孝·河野六郎·千野榮一編集 (1996) 『言語學大辭典 第6卷 述語編』三省堂  
小泉保 (1990) 『言外の言語學—日本語語用論—』三省堂  
阪田雪子·倉持保男(2001)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④文法Ⅱ改訂版』凡人社  
日本語教育學會編 (1992) 『日本語教育辭典』大修館書店  
Austin, J.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 Oxford University Press.  
Grice, H.P.(1991) “Studies in the way of words” : Harvard University Press.  
Leech, G.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 Longman Linguistics Library  
Levinson, S.C.(1983) “Pragmatics.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arle, J.R.(1969) “Speech acts” :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예문출전소설】

- [키] : 『キッチン』 吉本ばなな 1995 角川文庫  
[키] : 『きらきらひかる』 江國香織 2004 新潮社  
[希] : 『希望の国のエクソダス』 村上竜 2002 文芸旬春秋  
[西] : 『西の魔女が死んだ』 梨木香歩 2005 新潮社  
[世] : 『世界の中心で、愛をさけぶ』 片山恭一 2004 小学館  
[新] : 『新潮文庫の100冊』 1995 新潮社

## 要 旨

「依頼」表現は話し手にとって利益に繋がることを聞き手に実現させようと働きかける表現である。日本語において依頼表現は専用の言語形式を持たず、ある言語形式が一定の条件の下で「依頼」の意味を表す場合が多い。こうした「依頼」表現は話し手にとっては利益に繋がるが、聞き手にとっては負担になりかねないため、その使用場面において聞き手への適切な配慮が必要とされる。これは円滑な人間関係を維持するためにも重要である。そこで本稿では日本語の「依頼」表現を中心に語用論的な観点から分析し考察した。日本の小説から「依頼」の意味を表す表現を採集し、オースティンとサールの発話理論を基に「依頼」の使用条件について分析した。そして、その表現の相違点についてはグライスの「協調の原理」とリーチの「丁寧の原理」に基づいて同じ意味内容を持つ表現がどのような言外的な意味を持つのかについて考察した。これからは発話場面において相互主義的な観点からの研究が必要であり、文法を中心とした日本語の教育を変えて場面にあった適切な形式を教育させて行くべきだと思う。

キーワード：「依頼」表現、語用論、発話内行為、「協調の原理」、  
「丁寧さの原理」

투 고 : 2012. 2. 29  
1차 심사 : 2012. 3. 17  
2차 심사 : 2012. 4. 7